

## 문화재단 설립 위한 첫걸음 시작

[2009-08-10 오후 5:09:00]

전라북도에서는 도민들의 문화 활동 참여 욕구 증대 및 중앙부처의 예술지원정책 개선 방향에 따라 지역 문화예술 수준과 품격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민간 전문가 중심의 문화재단 설립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전북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보 및 도 홈페이지에 게재 8월 23일까지 도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.

그동안 도 문화예술과에서는 문화재단의 효율적 운영방안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 14개 시군을 순회하면서 지역 예술단체 및 예술인.관련 공무원 등과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였고 도민, 언론인, 전문가, 학계를 대상으로 2차의 공청회 및 자문회의, 부분별 간담회, 조례제정안에 대한 고문 변호사 자문 등 각계 각층의 문화재단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과 공감대를 형성 한 바 있다.

문화재단 조례제정 배경은 지역문화예술의 진흥과 문화복지 향상을 통하여 문화 창조 전복을 구현하고 문화예술정책의 일관성, 효율성, 창의성을 실현 민간의 역량과 자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새로운 문화창조의 설계와 촉진 및 지원 기능을 수행할 구심체로써 전북문화재단 설립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기 위해서이다.

금후 계획으로는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수렴과 검토와 조례안 관련부서의 법제 및 규제 심사, 도의회 심의 등을 거쳐 전북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공포할 계획이다. 김은숙 기자